

하람이 안녕.

날씨가 참 덥지. 원래 여름이 덥다고는 해도 이 정도로 덥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 전 지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1년에 0.05도 정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만 놓고 보면 1년에 0.5도는 오르는 느낌 이구나.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구 역사상 지상의 생물이 95% 이상 멸종했던 ~대멸종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백만년에 걸쳐서 멸종이 진행되었다고 하던데 지금 인류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된단다. 뭐 어느쪽이든 아빠나 하람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 더워지니 슬슬 걱정이 되는 구나.

오늘은 하람이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단다. 하람이의 할아버지는 전라남도 광주의 해남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단다. 3남2녀의 막내로 태어나셨어. 아빠의 기억이 맞다면 할아버지 위에 형이 하나 더 계셨다고 하는데 다른 친척의 장례식인가를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며 급사했다고 알고 있단다. 그래서 3남2녀가 된 것이야. 정확하진 않지만 아빠가 대학생 초기즈음에 할아버지 바로 위의 누나가 뇌출혈로 사망하셨고.

할아버지는 48년(1948년)에 태어나셨으니 6.25 전에 태어나셨단다. 그리고 전라남도도 전쟁중 북한군에게 점령 당한적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단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당시 아기였으니까 그저 누나 등에

업혀 전쟁중 보리밭에 숨어있고 그런 것이 전부였데. 뭐 할아버지의 집은 큰 부자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농사꾼 집안이어서 가족들이 북한군에게 끌려가 실향당하거나 재산을 모두 빼앗기는 일은 없었나봐. 대신, 잘 사는 집은 아니었으니 할아버지는 유치원에 다닐 나이에부터 부모님과 함께 등에 찰의를 잔뜩 짊어지고 5일장 장터에 따라나가고 그러셨나봐.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그때는 집에 아들이 태어나면 성인이 될 때까지 농사를 돕게 하다가, 성인이되면 농로를 나눠줘 농사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었단다. 그런데 증조할머니께서 남들과 생각이 많이 다르셨나봐.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형제들은 모두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었단다. 특히 큰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보다 열 살이 많으셨으니 할아버지는 큰 할아버지께서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 그래서 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아무튼 할아버지는 어렸을때 부터 많이 똑똑하셨던 것 같아. 당시에는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가 입학시험이 있었거든.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면 아예 학교를 다닐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단다. 그렇게 중학교에 입학해서 무난한 학교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주위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미리준비해 시험을 치는 것이 유행이었나봐.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이들던 시대였기 때문에 1년동안 공부를 하는것도 어렵던 시절이라서 능력만 된다면 조기미 졸업하거나 입학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던 시절이었거든. 그래서 할아버지도 남들처럼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미리공부했고, 덜컥 합격해 버리셨리. 하지만 원래는 바로 고등학교로 들어갈 생각은 없으셨다고 해.

아직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게 되었고. 그 당시 학교에선 아버지가 학교를 다니던 때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체벌이 아주 흔했단다. 당시 할아버지도 학교를 다니다 혼이 났는데 할아버지 입장에서서는 그게 많이 억울했나봐. 그래서 중학교를 자퇴해 버리고 바로 고등학교에 진급해 버렸어. 이건 순전히 아빠 생각인데, 할아버지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체벌도 심하게 했지만 뇌물도 많이 요구하던 시절이었거든. 아빠 생각이지만 할아버지는 머리가 좋았지만 잘 사는 집은 아니었잖아. 아마 선생님이 뇌물 달라고 괴롭히는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 아바때도 그랬지만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뇌물은 주지 않으면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도 드집을 잡아 괴롭히고 그랬거든.

아무튼 할아버지는 그렇게 중학교를 ~~자~~ 자퇴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셨어. 고등학교는 당시 전라남도 광주에서 제일 명문으로 알려진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들어가셨단다. 이름 웃기지? 광주에서 1등 고등학교라고 제일고등학교라고 하더라. 지금도 있는 학교야. 아무튼 고등학교를 들어간 이후 할아버지는 당연히 학교를 다니셨던 것 같아. 그러다 대학교를 갈 시기가 되어 많은 고민을 하셨고.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모두 가난했거든. 가족 중에 누군가 대학을 간다는 것은, 성인이 된 한 사람의 등록금과 교재비, 그리고 생활비를 나머지 가족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니까. 그 당시 이미 할아버지의 부모님(~~아버지~~ 증조부)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드셔서 할아버지의 대학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래서 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등록금을 마련해 주셔야 했나봐. 문제는 큰 할아버지는 당시 체신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니

셨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 대학교 등록금 등을 마련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나봐. 아뭇튼 할아버지는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해. 당신은
대학도 가고 싶고 또 의과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도 의과대학은
학비가 많이 비쌌으니까. 그래서 철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고민하다 결국
전자공학라를 가기로 하셨데. 그렇게 서울대학교 전자공학라를 가게 되었어.

어이쿠, 벌써 네 장이나 썼네. 아뵤가 수술을 하며 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요즘 펜을 오래 잡는 것이 많이 힘들구나. 손가락에
힘을 주면 통증이 심하거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쓸게.
그럼 건강하고 다음에 또 보자.

2025. 09. 29.

사랑하는 아빠가.

